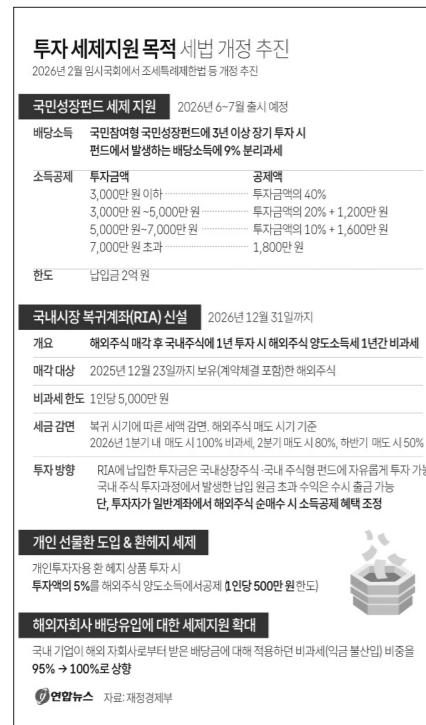


성장펀드 40% 소득공제…‘유턴’ 서학개미 양도세 0원



재경부,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 추진

국민성장펀드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도 RIA 5000만원까지 혜택…복귀시기 따라 차등 개인투자자용 환헤지·자회사 배당금도 혜택

해외주식 투자자가 올해 1분기 중 국내 유턴하면 5000만원 한도에서 양도소득이 전액 소득공제된다.

오는 6~7월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하는 개인에게는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납입금 2억 원까지 배당소득을 9%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한다.

재정경제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발표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 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 Reshoring Investment Account)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투자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공제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국내 주식 및 국내 주식형 펀드에 1년간 투자해야 하며, 주식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현금을 보유하는 것은 허용한다.

RIA 내 국내 주식과 과정에서 발생한 납입 원금을 초과한 수익은 수시로 출금할 수 있다. 한 사람당 매도 금액 5000만원이 한도이며 복귀 시기에 따라 차등해 소득 공제한다. 1분기 매도 시 100%, 2분기 매

도 시 80%, 하반기 매도 시 50%.

3월까지 해외주식을 5000만원 한도로 모두 매도한다면 내야할 양도소득세가 0 원인 셈이다.

세제 혜택만 노리고 ‘자금 끌려막기’로 해외주식에 다시 투자하는 체리피킹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도 구체화한다.

국내시장 복귀 계좌에 납입한 투자금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으나, 투자자가 일반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비례해 소득공제 혜택을 조정할 예정이다.

또 개인투자용 환 헤지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하는 특례를 도입한다. 1인당 공제 한도는 500만원이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수입배당금 이금 불산입률도 95%에서 100%로 높인다.

이 같은 해외주식 국내복귀·환 헤지 양도소득세 특례, 해외 자회사 수입 배당금 이금 불산입률 상향 특례는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연내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6~7월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도 마련했

다. 국민성장펀드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150조원 규모의 정책 펀드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납입금 2억원을 한도로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하고, 투자 금액에 따라 최대 40%를 소득공제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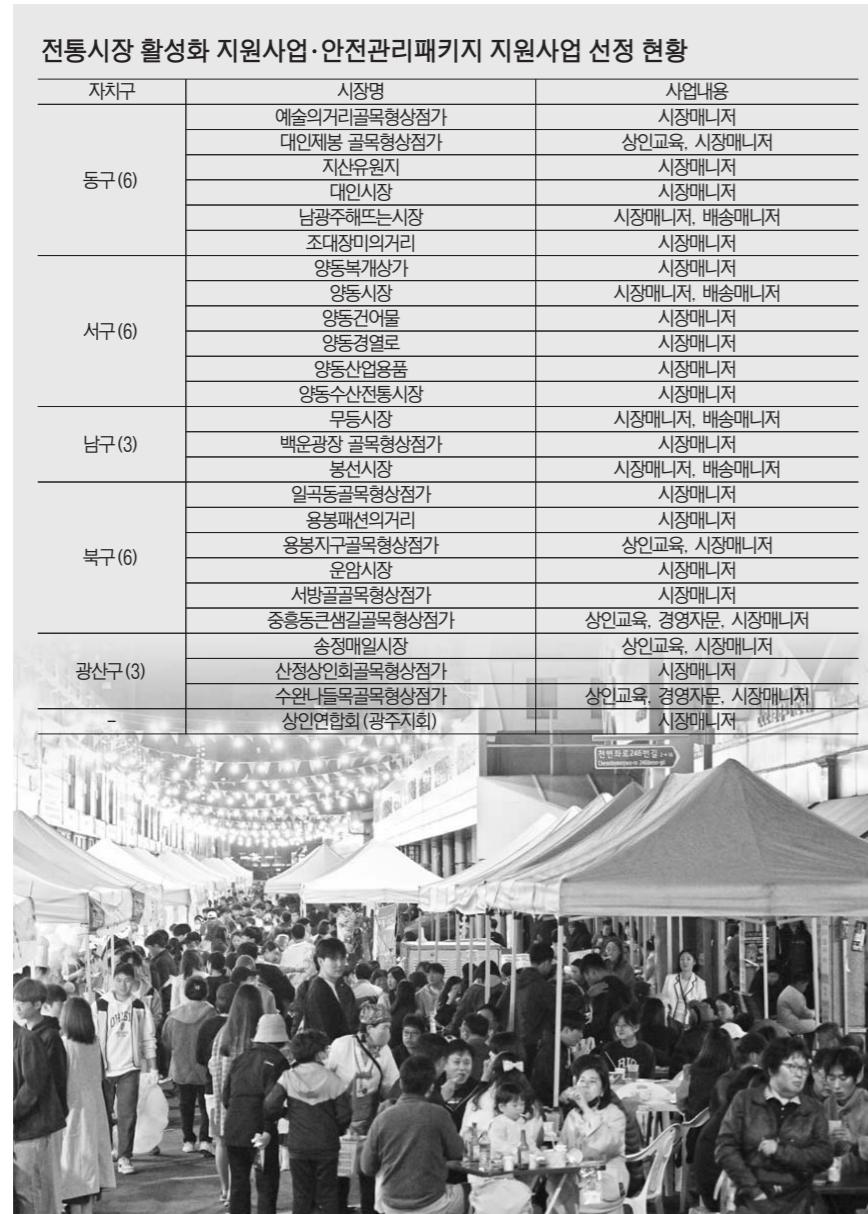
3000만원 이하분은 40%, 3000만~5000만원 이하분은 20%, 5000만~7000만원 이하는 10%를 적용한다.

단, 계좌 가입일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자는 제외된다.

기업 성장 집합투자 기구(BDC)도 납입금 2억원을 한도로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광주, 전통시장에 문화·관광 더해 활력 불어넣는다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활성화’ 공모 29개 시장·상점가 선정

국비 14억6000만원 확보…문화관광·경영지원 강화로 활력 제고

광주시가 전통시장과 상가에 문화와 관광을 더해 활력을 불어넣는다. 시장매니저와 배송매니저 배치 등을 통해 상인의 역량 강화를 돋는 것이 핵심이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의 ‘2026년 전통시장 활성화 및 안전관리 평가 지원사업’ 공모에서 지역별 전통시장과 상점가 29곳이 선정돼 국비 14억 6000만원을 확보했다. 국비 포함 총 사업비는 20억7000만원이다.

이번 정부 공모에 선정된 광주지역 전통시장은 문화관광형시장 2곳, 시장경영 지원 25곳, 안전관리 평가 지원 2곳 등이다.

‘문화관광형시장’ 사업은 지역의 역사·문화·관광자원과 전통시장을 연계한 특화 콘텐츠를 개발·운영하는 27개 사업이다. 지난해 남광주시장에 이어 올해 무등시장과 용봉파선의거리가 새롭게 선정되면서 광주지역에서는 총 3개 시장이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운영된다.

‘시장경영지원’ 사업(표)에는 동구 대인시장 등 6곳, 서구 양동부개상가 등 6곳, 남구 백운광장골목형상점가 등 3곳, 북구 운암시장 등 6곳, 광산구 송정매일시장 등 3곳 등을 비롯해 상인연합회 등 25개 시장과 상점가가 선정됐다.

백운정 시 경제정책과장은 “전통시장은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0일 오후 2시 광주승정역 귀빈실에서 신승규 현대자동차 PCO(Project Control Office) 장(전무), 최승범 현대자동차 전략기획실 상무 등 임원진을 면담하고 광주·전남 내 수전해 플랜트 구축, 서남권 피지컬 AI 전진기지 조성 등 현대차의 투자 유치를 위해 협의했다.

“광주·전남에 차세대 신산업 거점 구축을”

김영록 지사, 현대차 임원진 만나 투자 제안

광주·전남에 현대자동차그룹의 미래 투자를 끌어오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직접 현대차 임원진과 만나 수전해 플랜트와 피지컬 AI 등 신산업 투자를 제안하며, 광주·전남을 차세대 모빌리티·수소 산업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꺼내 들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0일 오후 2시 광주승정역 귀빈실에서 신승규 현대자동차 PCO(Project Control Office) 장(전무), 최승범 현대자동차 전략기획실 상무 등 임원진을 면담하고 광주·전남 내 수전해 플랜트,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이 있는 광주에는 피지컬 AI, 자율주행차, 휴먼로봇 등 신산업 분야에 투자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에는 완성차 생산과 인재, 연구

기반에 집적돼 있고, 전남에는 전국 최고 수준의 재생에너지 자원과 넓은 산업 임지

가 갖춰져 있다. 제조와 에너지, 미래 기술

을 동시에 품을 수 있는 이 같은 기반은 현

대차그룹의 중장기 전략과 맞물릴 수 있는

현실적인 조건으로, 광주·전남이 단순한 투

자 유치를 넘어 미래 산업 거점으로 주목

받는 이유가 되고 있다.

이현규 기자

전남 김치, ‘식단지침’ 바람 타고 미국시장 본격 공략

파김치 등 1830박스 선적 해외상설판매장 유통

미국 정부의 공식 식단 지침에 김치가 대표 밭식품으로 포함되면서 전남 김치의 미국 시장 공략이 본격화됐다. 전남 도는 전남김치사업협동조합과 함께 현지 유통망을 거점으로 수출 대형 힐에서 ‘전남 김치 미국 수출 선적식’을 열었다. 이번 물량은 알타리김치와 파김치, 포기김치 등 5종 1830박스로, 수출 액은 약 9000만원 규모다. 제품은 미국 내 전남 해외상설판매장을 중심으로 유통·판매될 예정이다.

이번 수출은 미국 보건복지부와 농무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미국 연방 식단 가이드라인’ 개정안에서 김치가 밭식품의 대표 사례로 언급된 흐름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개정안은 밭식품이 장내 미생물 다양성 형성에 기여해 건강



전남도는 20일 나주에 위치한 골든힐에서 ‘전남 김치 미국 수출 선적식’을 열었다.

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 했다. 국가 차원의 식생활 기준에 김치가 포함되면서 건강식 이미지가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다.

미국에서는 한류 확산과 함께 밭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김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건

강과 기능성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김치의 인지도와 소비층도 점차 넓어지는 추세다.

실제 전남 김치의 대미 수출액은 2023년 155만달러에서 2024년 157만 달러, 2025년 184만달러로 늘며 전년 대비 17.2% 성장했다.

김진태 전남김치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이번 수출은 전남 김치의 맛과 품질, 안전성이 현지 시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된 계기”라며 “원료 관리와 제품 표준화를 강화해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 받는 전남 김치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ews1@

코스피, 13거래일 만에 하락 ‘4885.75’

기관 6000억원 순매도

코스닥 4년만에 최고치

코스피가 20일 13거래일 만에 하락하며 4900선을 내렸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4.38p

(0.09%) 내린 4900.28로 출발해 18.91p

(0.39%) 내린 4885.75에장을 막았다.

지수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하락 전환해 장 초반 4823.88까지 내려갔다.

이후 장중 낙폭을 줄이고 상승 전환해 한때 4935.48까지 올라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하지만 장 후반 다시 내림세로 돌아선 코스피는 4800대에서 13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장을 마감했다. 이에 13거래일 연속 상승했던 지난 2019년 9월 4~24일의 기록은 넘지 못했다.

유기증권시장에서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3527억원, 721억원 매수 우위를 보였지만 기관이 6063억원 순매도해 지수를 끌어내렸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8.01p

(0.83%) 상승한 976.37에장을 마치며 2022년 1월 13일 이후 4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간밤 뉴욕증시는 ‘마틴 루터 킹 데이’를 맞아 하루 휴장했다.

이 가운데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세율에 대한 미 대법원의 판결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한편 그린란드를 둘러싸고 미국과 유럽의 무역전쟁 우려가 고조되면서 간밤 유로스탁스50지수 등 유럽 증시는 하락했다.

이날 국내 증시는 개인의 매수세와 기관의 매도세가 팽팽하게 맞서며 ‘룰러코스터’를 타는 흐름을 보였다.

그린란드를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미국 관세 판결을 앞둔 경계감 등은 이날 증시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

다만 정부 정책을 둘러싼 기대감은 지수 하방을 지지하는 모습이었다.

정부가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와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 도입을 위한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이날 장중 전해지면서 개인의 매수세를 일부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임재용 기자 djawody0316@gwangnam.co.kr